

# 익산시민의 기억 한자리에

### ‘백범김구 이리방문·해공신익희 유세’ 등 2081점 민간기록물 전시

백범 김구 선생 이리 방문,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세 사진 등 익산 근현대사를 담은 시민들의 기억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익산 교육의 발자취, 기록으로 말하다

의 교육'을 제1 테마로 교과서, 앨범 등으로 전시했다. 제2 테마는 익산의 문화로 익산의 역사, 종교, 문중 및 인물 기록이다. 제3 테마는 익산의 생활로 양로당 및 동계 자료, 일기 및 생활상 생활도구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 이리 방문 기념 사진 △합영학교의 향아 명부 △왕궁면 동흥리 마을의 장례를 알 수 있는 장의계록(葬儀契錄) △성리학의 기본원리를 그림을 붙여 풀이한 권근의 '입학도설' 사본 △구 호남병원 상량문 현판 △무궁화 아학교 운영 서류 등 다양한 기록물을 실물로 볼 수 있

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1946년 백범 김구 선생 이리 방문 등 원본 사진 앨범으로 대상을 수상한 흥정자님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23명 등 총 29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대상수상자인 흥정자님은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민간기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자주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전시회가 익산은 시민을 기억하고 시민은 애항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기록과 추억이 익산의 역사로 당당히 기억되는 민간기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신뢰받는 익산시의회 구현 다짐

###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등 펼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지난 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건) △동의안 4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익산시방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정과 개선 요구사항 482건을 지적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민원처리 결과 안내방

법 구체화 등 7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 사업 추진 관련 등 131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등 12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관련 등 215건이다.

한편 유재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언론보도에 따른 익산농협 조합원 자격논란에 대해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지속과 성찰을 통해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은 청렴한 생활로 신뢰받는 익산시의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리더로서 부패방지에 솔선수범하며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최종오 의장은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대단히 수고해 주셨다"면서 "신뢰받는 바른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채납처분 중지

군산시는 지난 7일 압류 실익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채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량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채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까지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및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오는 13일 경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채납처분 중지처분 후 해당 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김민호 시민납세과장은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채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서민 채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드론산업 활성화·지역발전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대표 박종민)와 시청 상황실에서 드론 관련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드론이 기반되는 산업 및 기술에 대비, 활성화하기 위한 군산형 드론 활용 사업 추진 등 드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시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드론비행 사전규제 및 전과 관련 사전평가 등을 유예 또는 면제·간소화하는 '드론특별자유

화구역'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실제 수요처와의 연계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 및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석 경제발전혁신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을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최

### 2022년 업무추진실적 청취·간담회... 42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0회 임시회를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9건 등 총 4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시의회는 급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서 한해의 시정실적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 정책대안 제시로 2023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통관장 설치 및 운영 계획, 중·고등학생 시내 버스 무상교통, 군산항·새만금신항 민간협력 새가버선구축, 제17호 완충녹지 대체부지 매입 및 조성계획 등 11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5건의 현정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과 윤신애·지해춘·김경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 환경봉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 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 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라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진다"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봉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올해에만 약 76건의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심사위원을 상대로 협박·강요하면 심사위원이 무서워서 어떻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사무의 부실운영 과정에서 주유소 리베이트 명목으로 부정 집행한 위태료 약 200만 원 환수 조치된 단체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민간위탁요 공금을 횡령한 단체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인민수심 단체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국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2022년 제10회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익산시 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익산시는 2019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상담업무 시작해 매체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임종존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제38회 전북 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제38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시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회장 주관하는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군산에서 개최됐다. 이번대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장애인 및 보호자, 운영위원과 임직원 등 약 1,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9월 20일에 월명게이트불장 및 군산시장애인체육관에서 사전경기(게이트볼 좌식배구)가 진행됐으며, 이날 큰공굴리기, 공뿔기, 한궁, 400M 휠체어계주 등 총 6종목으로 실력을 겨룬다.

대회장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박경호 협회장은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장애인 회원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자립과 재활 의지를 다지는 화합과 희망의 축제 한마당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